



전주매일



오늘 지선 후보 등록 시작 전북지역 선거전 본격 돌입

이원택·김관영 등 전북도지사 후보들, 민생 행보·지역 방문 등 표심 공략
지역 정가 “침체된 지역경제·민생 문제 해결 선거 핵심 과제 돼야” 목소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하면서 전북지역 선거전도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각 정당과 무소속 주자들은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후보자로 전환되며, 사실상 6·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지만,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각 후보 진영은 조직 정비와 공약 발표, 민생 행보, 지역 방문 일정 등을 본격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시에는 선출직별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지사과 전북자치도교육감 후보는 각각 5,000만원, 시장·군수 후보는 1,000만원, 도의원 후보는 300만원, 시·군의원 후보는 20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경제신문 광역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남원시장 양충

모 후보, 임실군수 한득수 후보, 순창군수 최영일 후보, 장수군수 최훈식 후보 등과 함께 국립 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며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오후 1시 30분에는 남원시장 양충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한 후, 선거사무소에 돌아와 도민 주권 참여선대위 2차 회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사)한국연극협회 전북도지회의 정책전담식이 장차소극장에서 진행되며, 7시부터는 청년선대위 1차 회의가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공보 팀은 밝혔다.

전북도민 후보를 자처하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9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김 후보는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익산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익산 신광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활동인 '김관영의 민생 속으로' 일정을 진행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오후 1시 30분에는 원광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YTN 생방송 라디오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고 9시에는 유튜브 김관영TV, 김관영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한 라이브 방송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온라인 소통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선거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에 나서 등 서민경제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단순한 정치 공방보다 실질적인 민생 회복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 열기만큼 중요한 것이 선거 이후의 혁신 도정과 민생”이라며 “도민들은 후보자들의 현란한 정치적 구호보다 어려운 전북의 경제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정책과 실행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달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나섰다.

소득 하위 70% 이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8일 2차 지급 개시... 121만명 대상 총 2138억원 지급
7월 3일까지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 중 신청해야
도, 전달TF 2차 점검회의 열고 지급 준비상황 최종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달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확보부터 지급 수단 현장 대응, 도민 편의 지원까지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은 △국비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 및 시군 지급 송부 현황 △선불카드 58만8,000여장 확보 계획 △사용처 확대(기존 11만4,986개→11만6,383개, 주유소·하나로마트·로컬푸드 추가) △읍면동 보조 인력 450명 배치 △이의신청 처리 시스템 교육 △온·오프라인 대민 홍보 △부정유용 신고 센터 운영 방안 등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으로, 총 121만명에게 2138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지급액은 전주

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 주민 15만 원, 정읍시·남원시·김제시 주민 20만 원,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주민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1만 2,000여명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온라인 쇼핑물과 유희·시행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 인력 450명을 배치해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된다.

1차 지급(4월 27일~5월 8일)에서는 대상자 16만1,250명 중 14만8,773명이 신청해 92.3%의 지급률을 기록, 전국 평균(91.2%)을 웃돌았다. 875억원이 집행됐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차 지급에서도 누락자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찾아오는 신청 서비스와 현장 지원체계를 적극 운영해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추진

내달 30일까지 27곳 대상 보육 품질·안전관리 종합심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지정된 도내 공공형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재지정은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공공형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다.

심사는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군 현장 확인 및 평가, 도 최종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은 자

체평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군은 현장 확인과 평가표 작성 후 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도가 최종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항목은 △평가기능 유지 여부 △행정처분 이력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보육교직원 전문성 △정원 충족률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급식·간식 관리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 항목을 포함한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재지정된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민주,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6선 조정식 의원 선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의 '격'

대한민국이 인증하고 전북이 보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JB

전북이 인증하는 우수상품의 격은 다르다.
간간한 기준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자격
안전에 대한 기준은 엄격
받아보는 소비자는 감격
JB의 마지막 기준은 당신의 합격입니다.
JB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Jc JB PREMIUM QUALITY

전북 한우, 전북 쌀, 전북 김, 전북 고추장